



통합화학섬유연맹

공동위원장에게 듣는다

지난 2월 22일 전국민주화학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오길성)과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위원장 황영호)이 통합대의원대회를 열고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으로 출범했다. 이로써 민주노총의 제조업 가맹 조직은 금속산업연맹과 통합화학섬유연맹 2개만 남게 되었다. 산별노조 건설의 전망 속에서 유사 산별연맹간의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 1년간 통합화학섬유연맹을 함께 이끌어갈 오길성 위원장과 황영호 위원장을 인터뷰했다.

두 연맹이 걸어온 길을 소개해 주시죠.

황영호 : 섬유연맹은 섬유산업에서 자주적 노조운동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던 '섬유연맹 추진위' 와 1987년 노동자대투쟁과 함께 활성화되어 온 화섬분과의 사업장들이 주축이 되어 1996년 출범했습니다.

연맹 창립이후 대구지역의 섬유사업장과 구미지역의 화섬업종을 중심으

로 조직확대와 노조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현재 26개 노조 약 12,000여명의 노동자가 연맹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오길성 : 화학연맹은 1994년 12월 조직책임자회의를 시작으로 1995년 12월 화학노협 준비위, 1996년 3월 전국민주화학노동조합협의회를 거쳐 1997년 3월 16일 창립했습니다. 우리 연맹은 창립과 함께 국제적인 연합단체인 국제화학에너지광산일반노련(ICEM)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화학연맹은 화학노협 창립시 34개 노조 9,800명의 조합원으로 시작해, 현재 8개 지역본부, 70개노조 19,150여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합연맹은 어떤 진용을 갖추게 됩니까 ?

오길성 : 통합연맹이 만들어지면 화학·석유산업에서 일하는 100만~150만명 이상의 노동자를 조직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이번 통합으로 화학 71개 노조 2만여명, 석유 27개 노조 1만 2천여명으로 모두 98개 노조 3만 2천여명의 조합원을 포괄하게 됩니다. 사무처는 상근 임원 4명과 연맹 직원 11명 등 대략 15명 정도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두 조직이 통합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오길성 :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조직 내적인 측면입니다. 화학연맹이 만들어진 지 3년이 지났고 그동안 조직이 확대되고 안정화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조직의 영세성으로 인해 상급단체로서의 역할에 얼마간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진행에 필요한 재정 및 인력의 부족으로 사업집행과 조직운영 그리고 정책개발에서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조직규모 강화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단초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조직의 발전적인 측면입니다. 지금 노동운동은 산별노조 건설이 대세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런 흐름 속에서 비슷한 산업 구성을 갖고 있는



오길성 위원장

통합연맹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고 나아가 조직 내부의 완전한 통합성을 이뤄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내적 결속력과 단결력, 사업의 실천적 집행, 지도집행력 확보, 그리고 조직의 확대와 조직사업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화학과 섬유가 통합함으로써 화학·섬유 산업에서의 산별노조를 위한 토대를 만들어 간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홍영호 : 저희도 마찬가지로 문제의식입니다. 최근 노동운동을 둘러싼 조건과 상황은 기업별노조의 수준을 뛰어넘는 산별차원의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는 한 차원 앞서는 인적·물적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수준에서는 산별 차원의 정책 마련은커녕 연맹의 일상 사업을 전개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구조로서는 지역 차원의 연대활동에도 힘이 실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통합은 두 연맹의 조직력을 한데 모으고, 이를 토대로 향후 산별노조로 나가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통합 과정은 어떻게 이뤄졌습니까

오길성 : 민주노총이 산별노조 건설을 위해 유사연맹 통합사업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화학연맹은 1998년 2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처음으로 민주심유연맹과의 공동사업을 추진키로 공식 결의하였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섬유연맹에 간담회와 전국노동자대회공동결의대회 등 공동사업을 제안하며 통합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이에 발맞춰 1998년 11월 8일 전국노동자대회 사전 공동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동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통합준비를 위한 3차례의 공식회의와 연합대표자수련회 등을 통해

화학연맹은 1999년 2월 25일, 섬유연맹은 3월 8일 대의원대회에서 공식적으로 통합추진을 결의하고, 이를 추진할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 위원 5명씩을 선출하게 됩니다.

이어 세 차례의 통추위 회의와 연합대표자수련회 이후 작년 9월 10일 두 연맹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대의원대회를 갖고 통합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결정·집행하기 위해 두 연맹위원장을 포함한 각 8명씩으로 통합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통합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통합준비위원회는 산하에 기획소위, 강령규약소위, 재정소위 등 3개의 소위를 두어 구체적인 통합을 준비해 왔습니다.

통준위 구성 이후 모든 사업은 통준위 이름으로 진행되었는데 공동체육대회, 공동간부수련회, 공동대표자수련회, 공동정책기획담당자 수련회, 전국노동자대회/노동절 공동행사를 진행하면서 조직간의 동질성을 넓혀왔습니다. 또 통합사업을 현장 간부와 조합원들의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 속에서 진행하기 위해 각 지역과 500인 이상 노조를 대상으로 <통합연맹 건설을 위한 전국순회 간담회>를 조직했습니다. 이 간담회는 11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진행되었으며, 간담회는 7개 지역의 42개노조 500여명의 간부와 조합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2월 1일 양 연맹은 속리산에서 연합대의원대회를 열고 '조건부 해산'을 결의했고, 지난 2월 22일 통합대의원대회를 치루게 된 것입니다.

통합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없었습니까?



황영호 위원장

통합은 새로운 출발입니다.

1년 동안 더욱
현장조합원과 함께하는
연맹, 투쟁하는 연맹,
그리고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혁신하는 연맹을
만드는데 미려하나마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황영호 : 섬유연맹의 경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앞에서 오길성 위원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그동안 두 연맹은 조직간의 동질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을 계속해 왔고,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아직도 여러가지 점에서 부족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앞으로 잘 극복해 나가리라 봅니다.

오길성 : 두 연맹은 다르게 출발했으며, 조직체계 및 사업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화학연맹은 지역본부와 중앙위원회 체제였는데 비해, 섬유연맹은 업종분과와 대표자회의체였습니다. 이런 차이를 극복하고 동질성을 얻기 위한 통합준비 사업을 2년여에 걸쳐 진행하여 왔지만 부족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통합연맹의 출범이 갖는 의미를 말씀해주시죠.

황영호 :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민주노조운동은 능동적인 자기혁신을 요구받고 있으며, 이를 위한 조직적 과제로 산별노조 건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별노조건설의 전단계로 연맹활동의 질적 발전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맹간의 통합사업이 활발히 진척되고 있으며, 이미 금속산업연맹(금속 3조직의 통합)과 공공연맹(공공 3조직 통합), 사무금융노련(사무노련과 민주금융연맹의 통합)에 이어 상업연맹과 민주관광연맹이 공식적으로 통합을 결의하여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화학과 섬유의 통합이 당면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날로 드세어지는 자본의 공세 속에서 그 동안 투쟁의 성과들을 지켜내고 미래의 전망을 밝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오길성 : 저도 황영호 위원장님과 의견이 같습니다. 이번 통합은 노동자의 통큰 단결을 실천적으로 보여준다는 의미가 큼니다. 그리고 정권과 자본의 총체적 공세에 대응할 공동전선을 친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

니다. 조직적으로는 민주노총의 방침에 따라 유사 연맹간 통합을 이뤄 보다 커진 힘으로 민주노조운동 발전에 기여하게 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통합연맹의 초대 집행부로서 1년 임기 동안의 각오를 말씀해 주십시오.

황영호 : 통합은 새로운 출발입니다. 1년 동안 더욱 현장조합원과 함께하는 연맹, 투쟁하는 연맹, 그리고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혁신하는 연맹을 만드는데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오길성 : 황영호 공동위원장과 함께 맡겨진 임기 1년 동안 통합연맹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고 나아가 조직 내부의 완전한 통일성을 이뤄 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내적 결속력과 단결력, 사업의 실천적 집행, 지도집행력 확보, 그리고 조직의 확대와 조직사업에 최선을 다할 작정입니다. ❖